

군산시 '돌봄 쿠폰' 지급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지급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아이 행복카드 통해 이달 중 지급키로

군산시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에 따르면 보건물품 구매비용 증가, 긴급 돌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기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 1인당 40만 원(월 10만 원,

4개월분) 아동돌봄쿠폰을 아이(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할 방침이다.

아이(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하며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으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선불카드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동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과 업종을 제한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양육가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아동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돌봄쿠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454-3233) 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중국 자매우호도시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 중국 자매우호도시 잇단 온정

장수성 장인시·산동성 웨이하이시 등 의료용 마스크 보내와

군산시 중국 자매우호도시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매도시들의 따뜻한 손길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나눔의 손길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장수성 장인시는 코로나19 국난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의료용 마스크 30,000매를 보내왔다.

또 지난 3일 우호도시 중 하나인 산동성 웨이하이시에서도 위문 서한문과 더불어 의료용 마스크 20,000매를 긴급하게 보내와 요양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전달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1997년 우호관계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중국 장수성 군산시도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의료용 마스크 10,000매를 구비해 이달 안으로 보내올 계획이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자매·우호도시와 견고한 유대관계를 다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우호증진 및 중국 내 군산 이미지 제고와 경제·문화교류 저변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중국 내 6개성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도시와 국제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중국사무소를 설립해 민·관이 함께하는 실질적·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원예농협, 2019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

판매 전문 농협으로 인지도 UP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화)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19년 종합업적 평가(품목그룹)에서 전국 1위(최우수상)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06년,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최우수 전국 1위의 농협으로 우뚝 선 익산원예농협은 매년 매출과 수익의 성장 속에서 경영 실적은 물론 조합원을 비롯한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조합원 영농비 절감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에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소비

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매진하고 있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판매사업을 1천2백억원 이상 거양하고 있는 판매 전문 농협으로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

본래 수상식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지난달 28일(목)에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1일(수) 14시에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수상식을 거행하였다.

김봉화 조합장은 먼저 전 조합원님과 고객님의 우리농협에 대한 변함없는 이용과 신뢰, 믿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



려운 경제와 경영환경이지만, 조기종식과 극복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였고, 올해 개최하고자 했던 전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취소하고 영농생산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영농자재지원금으로 조합원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고자 소비재 품목의 증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전국 1위'

7차례 선정 영예... 진료·치료·재활·예방 전국 최고 입증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사업 성과 차등 평가 결과에서 7번째 전국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원광대병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아 2011년 개소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전국 1위를 그리고 2018년 전국 1위에 선정되었다. 이번 2019년 사업평가에서도 총점 97.6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현재까지 9번의 운영사업평가 중 7번 전국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라북도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의 진료·치료·재활·예방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환자 진료, 치료, 관리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에서 구조, 과정, 결과 지표 모두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지역특화사업과 닥터헬기를 활용한 지역연계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북도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 24시간 365일 당직 전문의 응급진료체계 운영,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및 지속관리, 보건 의료 전문인력 교육·

훈련, 캠페인, 통계자료 산출,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연구, 조기재활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권역 거점센터의 역할을 전국에서 가장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권하 병원장은 "김남호 센터장을 비롯하여 병원 구성원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7번째 전국 평가 1위의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광대학교병원이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수요 폭증... 한시적 설치

군산시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장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층)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으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수요가 폭증하자, 군산시가 소상공인이 신청 장소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긴급 이동 배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대출 준비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한시 이동 운영으로 각종 대출서류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직접대출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고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창업희망 참여자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문섭)가 이달 15일까지 생활혁신형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군산시민을 위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사업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픈형 창업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마케팅·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수요자 중 우수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제품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여야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외국인 대학생·직장인들 익산 신동지구대 인권보호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에서는 관내 특성을 감안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곳에서부터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대상 외국인들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생활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부터 각종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눈 앞에 벌어지고 있을 때 신고하는 요령 등 신동지구대 직원 소속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담아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움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지, 신고 전화번호나 관할인 신동지구대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지 등을 하나하나 물어보며 그들의 말 못한 사연을 경청하고 역지사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